재침의 독이발을 드러내다

최근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일본은 앞으로 231억US$의 자금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F-35A》 63대와 《F-35B》 42대 등을 끌어들인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얼마전에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를 통해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일본의 공중과 해상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떠들면서 직승기호위함(구축함)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개조하여 《F-35B》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착수한 극초음속공대함미싸일개발을 2030년까지 끝내는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적 미싸일기지를 타격할수 있는 무기를 획득하는것은 일본이 고려할 선택사항이다.》, 《적기지를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억제수단으로 가지는게 중요하다.》면서 토마호크미싸일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일본 륙상 《자위대》가 수직리착륙수송기 2대를 배치하고 앞으로 17대를 끌어들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수직리착륙수송기는 《일본판해병대》라고 불리우는 륙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한다. 수륙기동단은 지난 2월 미해병대와 오끼나와 미군훈련장에서 첫 련합훈련을 벌렸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해병대를 창설하고 상륙작전준비도 강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례들이다.

또한 일본이 배치하거나 개발중인 스렐스전투기나 경항공모함, 극초음속공대함미싸일 등은 모두 공격무기들이다.

다 아는것처럼 일본헌법에는 국가가 전쟁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여있다.

일본헌법 9조 1항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되여있다. 또 2항에는 《륙해공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있다. 그것도 《자위대》는 《침공한 적을 령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하는데만 쓰겠다는 《전수방위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이러한 《자위대》가 방어용이 아닌 현대적인 공격용무기들로 장비하고있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이란것이 이제는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대보유, 참전권, 교전권을 박탈당한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도전하여 《자위대》를 완전한 공격형무력으로 재편성하고있는것은 일본의 재침야망이 이미 한계점을 넘고있음을 시사해준다.

지금 일본은 독도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의 섬들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면서 침략의 구실을 찾고있다.

피묻은 독사의 이발을 드러내놓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위험한 무력증강책동은 그들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존재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일본이 또다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위험천만한 행태는 지난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온갖 고통과 불행을 당한 아시아인민들과 세인의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화책동은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로 될 뿐이다.

본사기자 한복순

민심이 요구하는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과 보수언론의 유착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보다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검찰과 보수언론의 유착의혹사건은 법무연수원의 한 연구위원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3월 《동아일보》 소속 기자와 짜고 금융사기죄로 수감중인 죄수에게 《로무현재단》 리사장 류시민 등 여권관계자들의 퇴물협의를 허위증언하도록 한 남조선검찰패들의 부정부패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는 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내도록 하였으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뻣뻣하게 놀아대는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적폐세력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여왔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수사지휘권발동과 관련하여 《전국검사장회의》를 벌리며 검찰내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검찰계의 원로급인물들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하면서 대응책마련을 위해 부산을 피워대는가 하면 법무부에 매일과 같이 절충안을 제기하면서 수사지휘권문제를 타협해보려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수사지휘권을 계속 고집할 명분이 없고 법무부 장관이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이상 뻗쳐대다가는 더욱 수세에 몰릴수 있다고 타산하고 지난 9일 일단 수사지휘권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사이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검찰개혁은 《검찰죽이기》이라고 고아대면서 검찰적폐무리를 싸고돌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검찰은 파쇼독재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쳐왔다.

력대로 반역통치배들의 편에 서서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처참히 유린하며 진보와 개혁을 집요하게 가로막은것도 남조선검찰이다. 세인을 경악케 한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자주민보》의 폐간,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박탈사건은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여 권력을 휘두르며 진보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말살해온 검찰패거리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최근에도 이자들은 《미래통합당》것들의 부추김밑에 진보개혁적인 인사들을 부정추문사건들에 걸어 하나둘 제거하면서 보수의 재집권을 위한 돌격대노릇을 하고있다.

하기에 보수패당은 저들의 진때가 묻은 검찰의 기반이 무너지고 적폐청산이 본격화되면 재집권야망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미 검찰적폐세력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내려졌고 검찰개혁은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검찰개혁은 시대적요구이다.》, 《정치검찰 퇴치하고 검찰개혁 실현하자!》, 《적폐청산을 통해 사회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곳곳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인터네트에는 《초불의 명령이다. 검찰개혁 이루어내자》, 《윤석열 사퇴》, 《검찰개혁 완수》라는 글들이 오르고있다.

적폐세력들이 민심에 도전하여 발광할수록 그것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남조선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각계층은 사회적진보와 민주개혁을 가로막는 적폐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최정찬

재밥에만 신경쓰는 반역당

남조선에서 얼마전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였다고 한다. 저들이 요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자리를 내놓으라고 앙탈질을 하면서 《국회》 문을 박차고 나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다.

민심의 심판을 받고 파멸의 함정에 빠져 한숨만 쉬며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맥빠진 소리만 줴쳐대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던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의 태도변화를 두고 분석가들은 《미래통합당》이 더이상 뻗치다가는 정치계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구심으로 하여 《국회》에 복귀하였다고 평하고있다.

비단 이것때문만이 아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문제, 종합부동산세법개정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문제 등을 놓고 여당과 옥신각신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이 권력탈취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보려는 《미래통합당》의 비렬한 정치적 행위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여론들과 각계에서 《보이꼬트 안한다며 복귀한 통합당이 사실상 집권을 위한 장외투쟁에 골몰하고있다.》고 하면서 정쟁만 일삼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과 단죄의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재에는 관심이 없고 재밥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는 사실상 민생을 돌보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저들의 더러운 권력야욕실현을 위해서이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있는것이다.

민의와 민생은 아랑곳없이 《국회》를 한갖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다보니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객주집 드나들듯 하면서 사대매국과 반인민적 정치에만 매여달리고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쏟아지게 될것은 뻔하다.

남조선 각계에서 하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제 리속만 차리려는 《미래통합당》을 당장 해산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민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래통합당》 해산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안권일

남조선 대전시민단체들
친일적폐무리들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대전시안의 시민단체들이 친일매국노인 백선엽을 비호하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민중의 힘》을 비롯한 단체들과 주민들은 시민대회를 열고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극우보수패당이 백선엽을 《영웅》, 《가장 존경하는 군인》으로 미화하는 추태를 부린데 대해 《친일적폐무리들의 망동》,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강력히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저질스러운 민심유혹의 광대극을 또다시 펼쳐놓고있다.

지난 20일 보수패당은 이른바 당의 새 정강초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수십년간 적폐정당의 기존정강에는 언급되지조차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고있다고 한다.

한두가지 꼽아본다면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거나 《일할수 있는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게 한다.》는 문구 같은것이다.

《미래통합당》패들은 이날 공개된 정강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공모》를 통한 당명과 당의 상징색 등도 모두 바꾸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흰소리를 치고있다고 한다.

나락에 빠진 가련한 처지를 구해보려는 적폐무리들의 유치한 발버둥질이라 해야 할것이다.

사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을 총칼로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학살해온 독재세력이다.

까마귀의 백로흉내

뿌리로 보나 줄기로 보나 올데갈데 없는 파쇼독재세력이다.

이런자들이 지금에 와서 정강이나 한두절 보충한다고 해서 파쇼독재, 동족대결, 반인민적인 당의 근본체질이 조금도 달라질수 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의 4.19봉기에 의해 거꾸러진 독재자를 두고 《리승만의 업적이 훼손되지 않고 그 정신이 길이길이 이어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떠드는것이나 새 정강초안에 《조국근대화정신》을 쪼아박으며 《유신》 독재자를 또다시 찬미해나선것도 그 뿌리는 저들도 부정하지 못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독재와 민주는 한바리에 실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화를 부정하고 총칼과 땅크의 무한궤도로 짓밟아온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들이 감히 4월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쟁을 비롯한 의로운 정신을 파쇼독재자들의 《업적》, 《정신》과 함께 계승한다고 새 정강초안에 나란히 명시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렬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하는짓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변화》를 떠들면서도 새 정강초안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외세를 등에 업은 《흡수통일》기도, 외세굴종적립장과 자세를 명백히 찍어밝힌것은 결코 변할래야 변할수 없는 이 반역당의 정체를 더욱 드러내보이고있다.

현실은 《정강》이나 보충하고 《혁신》나발을 불어댄다고 해서 민심을 등진 반역당의 체질이 조금도 달라질수 없음을 까밝혀주고있다.

까마귀가 흰 칠을 한다고 해도 백로가 될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영원히 변할수 없고 변하지도 않는 보수적폐의 상징일뿐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가이다.

배영일

혼란에 빠진 남조선의 부동산시장

집없는 사람들의 한숨소리

남조선에서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뛰여올라 집없는 사람들의 설음을 더해주고있다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해마다 집값이 뛰여올라 최근 2년사이에 40%나 폭등하여 지난 시기를 릉가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는 무려 40여년이라는 세월이 걸려도 모자란다고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집문제로 하여 20~30대는 제 집을 마련할수 없다는 절망감, 40대는 신혼시절에 구입한 좁고 낡은 주택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분노감, 50대는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식들을 보며 허탈감에 빠져들고있다고 한다.

반면에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투기행위를 일삼아 수십만US$의 리득을 얻고있는것으로 하여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지난 3월 남조선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주민세대수의 41%에 달하는 816만세대가 제 집이 없이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부자들과 특권층들이 주택을 사리사욕과 치부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삼고 투기와 협잡행위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자기 집을 마련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세방살이를 하거나 움막집, 짐함집 등 집 아닌 《집》에서 생활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외국의 언론들은 최근 주택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광범한 투기로 하여 《수도권》지역의 주택값이 껑충껑충 뛰여오르고있으며 이로 인한 타격은 제일먼저 평범한 서민들에게 가혹하게 가해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집없는 사람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범

특권층을 위한 사회

남조선에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집값이 부쩍 오르면서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극소수의 돈많은 특권족속들이 부동산을 리용한 투기와 협잡행위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사리사욕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이와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제 집이 없어 세방살이와 주소도 없는 움막집, 판자집 등 집 아닌 《집》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우리의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사회는 다주택자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부동산정책이 누구를 위한것이겠는지는 불보듯 뻔하다.》, 《부동산을 사리사욕과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부동산투기와 협잡행위로 누리는 저들의 호화방탕한 생활을 결코 인민들을 위해 버리겠다고 하는 부동산소유자는 하나도 없다.》고 비난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정부》관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식의 행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증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민심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개인재산권침해》라고 우겨대면서 절대 수용할수 없다고 강변하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은 상관없이 저들의 돈벌이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의 행태가 이제는 민심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다주택자 의원은 41명이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다주택처분에 대해 〈반헌법적발상〉이라고 반발했다.》고 하면서 보수패거리들을 비난하고있다.

남조선에는 《한생 내 집 마련이 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회, 평범한 인민들은 제 집을 마련할 생각도 못하는 사회가 남조선이라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본사기자 한일혁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력사에 류례없는 중세기적인 노예사냥

일본은 력사적으로 죄많은 나라, 랍치범죄의 왕국이다.

오래전부터 타민족에 대한 랍치와 로략질을 일삼으면서 생존해왔으며 랍치를 중요한 국책으로 삼아온것이 일본이다.

랍치에 이골이 난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조선인청장년들에 대한 랍치와 유괴, 강제련행은 그 수법과 야만성에서 중세기에 벌어졌던 노예사냥에 결코 짝지지 않는 특대형범죄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정책의 직접적집행자였던 조선총독부의 재무국장 미주다 나오히로가 실토한 내용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본에서는 석탄을 캐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5 000만t의 석탄을 캐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그의 60%는 조선사람들이 하였으며 항만축조와 군항을 만든것도 조선사람들이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일제는 병력과 로동력의 결핍에 직면하게 되였다. 전선이 확대되는것만큼 인적 및 물적 소모도 커졌던것이다.

급해맞은 일제는 부족되는 병력과 로동력을 조선에서 충당하려 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학도근로령》 등 각종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조선청장년들을 직업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장과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일제가 조선인강제련행에 《모집》의 외피를 씌워놓았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노예사냥이였으며 관권과 군력이 개입된 로골적이고 규모가 큰 범죄행위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전시로력동원계획》에 따르는 《인력공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알선요강》에 근거하여 《조선로무협회》를 만들어내고 총독부내에 그 본부를, 각 도에는 지부를, 각 부, 군, 도(섬)에는 분회를 두는 등 조직망을 전국각지에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조선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강제련행해갔다.

당시 조선인강제련행에 나섰던 일본인 가마다는 《가장 가혹한것은 로무의 징용이였다. 전쟁이 점차 가렬해짐에 따라 … 로무징용자의 할당이 상당히 엄하게 되였다. 납득시켜서 응모하게 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예정수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였다. 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트럭을 들이대고 거리낌없이 잡아갔다. 그 다음에는 대오를 편성해서 혹가이도나 규슈의 탄광들에 보냈다. 그렇게 해야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란폭한짓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에서 발간된 한 출판물도 《…1939년에 〈징용령〉이 발동되여 불과 1년사이에 40만명이상을 련행하였다고 한다. 1945년의 패전당시까지 도대체 얼마나 련행되였는지는 아직 밝힐수 없다.》고 까밝혔다.

이렇게 끌고간 조선사람들은 광산, 탄광, 발전소 언제공사장 등에 배치하고 짐승처럼 부려먹었다.

조선사람들을 일본인죄수들보다 더 심하게 학대한것만 보아도 일제의 비인간성과 민족멸시사상이 얼마나 농후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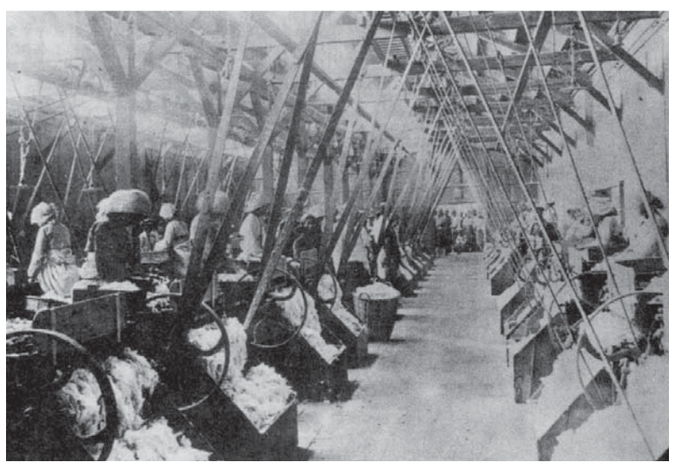
이에 대해 어느 한 일본인은 다까시로해군공장건설장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사람들을 일본인죄수들과 비교하면서 《푸른색, 붉은색옷을 입은 일본인죄수들은 조선인들에 비해본다면 식의주, 로동조건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월등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언제나 발가벗고 일하였으며 땀을 닦을 수건도 없었다. 조선사람들은 노예들이 아니였다.》고 실토하였다.

이처럼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감행된 랍치와 련행, 집단적학살과 같은 극악한 범죄행위는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치의 진범인인 일본은 지난날의 범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행위로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리훈혁



오사까 가시와다방직공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 조선녀성들